

EAI  
여론분석센터

## 작성 자

김준석  
EAI 시민정치패널  
동국대학교

여기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0-78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동아시아연구원

© EAI 2012

www.eai.or.kr

2012년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소통대통령  
국정운영능력은 박근혜, 도덕성과 소통 능력은 안철수

## 2012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46.4%, 국정운영능력 27.2%, 도덕성 22.9% 순

2012년 국민이 바라는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금번 패널 조사에 선 응답자의 46.4%가 국민과의 소통능력을 첫 손가락으로 꼽았고, 뛰어난 국정운영 능력 27.2%, 도덕성 22.9%의 순이었다.

유권자의 이념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후보자의 소통능력에 대한 갈망이 높았다. 진보적 유권자의 60%가 국민과의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을 국정운영이 뛰어난 대통령이나 도덕적 대통령보다 우선시 했다. 특히 선거의 판세를 가를 주요 집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념적 중도 층의 후보자 선택 기준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도 유권자의 46.8%가 국민과의 소통을 선택함으로써, 국정운영능력(22.9%), 도덕성(24.2%)보다 앞섰다.

후보자의 소통능력이 2012 대선의 주요 화두로 부각된 데에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50.4%)이 다음 대통령의 대 국민 소통능력을 강조했고, 현 정부에 긍정적인 유권자는 국정운영능력(38%)을 우선 덕목으로 꼽았다. 이런 결과는 향후 대선 가도에서 여·야의 후보들의 유권자와의 공감과 소통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

## 진보·중도는 소통, 보수는 국정능력 중시

국정운영은 박근혜 66.4%가 긍정적, 안철수

는 45.5%만 긍정적이었다. 국정운영능력 항목에선 박근혜 후보가 가장 후한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의 66.4%가 박 후보의 국정운영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고, 보통 18.2%, 미흡하단 의견은 15.2%였다.

보수적 유권자의 압도적인 호의적 평가(83.2%)는 당연하다 해도, 중도층(61%)은 물론 진보적 유권자의 절반 이상(50.9%)이 박 후보의 국정운영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문재인 후보는 응답자의 54%가 긍정적 평가를, 안철수 교수는 절반에 못 미치는 45.5%의 응답자만이 '충분한 국정운영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운영능력이 미흡하단 평가도 문재인(15.1%), 안철수(26.9%)의 순이었다.

## 국정운영능력은 박근혜, 소통은 안철수

도덕성에선 안철수 우위, 박은 문에 뒤져

안철수 교수는 도덕성과 국민과의 소통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철수 교수의 도덕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67.3%가, 소통능력에선 68.9%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근혜 (도덕성 55.8%; 소통능력 54.9%), 문재인 (도덕성 56.1% ; 소통능력 57.3%)후보는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박근혜 후보에 대해선 보수적 유권자의 71%가 소통을 잘한다는 평가를 한 반면, 진보의 39.8%, 중도의 49.6%만 이 박 후보의 소통능력이 충분하다고 답함으로써 평가가 갈렸다. 박 후보의 유권자 소통방식에 대한 중도 유권자의 부정적 평가는 현재 지지층 외연 확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후보의 어려움과 함께, 그간 의사당 복도 정치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다.

**과제 : 朴-파격소통, 安-통치력 입증, 文-존재감 강화**

본 패널 조사는 유권자의 주요 후보 3인의 자질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향후 각 후보의 선거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이희호 여사 예방, 대학생들과의 반값 등록금 토론 등 후보 확정 다음 날부터 몰아친 박근혜 후보의 ‘광폭’ 행보는 그간의 소통방식과 완전히 궤를 달리한 것이다. 향후 본선 선대위 구성이나, 행보에서 더욱 과감한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교수는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유권자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것

이 가장 큰 과제다. 본인 자신이 공식경험이 없고, 독자적 정치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안 교수가 지지율 섀범을 넘어 민주통합당과 연합을 더욱 필요로 하게 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정운영능력, 도덕성, 소통능력 어느 부분에서도 타 후보에 비한 강점을 보이지 못했다. 민주당 경선 이후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향후 안 교수와의 단일화 논의나, 대선 3자 구도가 될 경우에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 (%)

		국정운영능력	도덕성	소통능력	기타
전체 유권자		27.2	22.9	46.4	3.5
이념성향	진보	16.5	21.2	60	2.3
	중도	25.8	24.2	46.8	3.2
	보수	35.0	22.5	38.3	4.1
국정운영 만족도	잘했다	38.0	22	35.9	4.1
	잘못했다	22.9	23.4	50.4	3.2

[표 2] 유권자의 대선주자 자질인식 (%)<sup>1)</sup>

	유권자이념	국정운영능력			도덕성			소통능력		
		미흡	보통	충분	미흡	보통	충분	미흡	보통	충분
박근혜	전체	15.2	18.2	66.4	24.1	19.7	55.8	24.9	20.0	54.9
	진보	28.5	19.9	50.9	48.3	14.3	36.7	45.1	14.5	39.8
	중도	16.0	23.0	61.0	23.3	25.8	50.7	25.5	25.0	49.6
	보수	5.6	11.2	83.2	9.9	15.8	74.2	11.2	17.8	71.0
문재인	전체	15.1	30.1	54.0	13.7	28.9	56.1	14.6	27.5	57.3
	진보	10.0	20.8	68.2	9.5	21.8	67.5	10.1	19.4	69.6
	중도	13.4	36.2	49.8	12.9	31.6	54.2	14.9	32.3	52.5
	보수	20.2	28.0	51.5	16.9	29.2	52.8	16.5	26.2	56.9
안철수	전체	26.9	26.4	45.5	13.2	18.1	67.3	16.1	14.4	68.9
	진보	17.0	22.0	59.8	6.6	9.9	82.5	8.8	7.5	82.7
	중도	24.5	30.6	44.2	12.5	19.1	67.2	15.9	16.2	67.7
	보수	35.7	24.7	38.8	17.3	21.8	59.8	19.5	16.7	63.4

1) 모름 및 무응답 비율은 제외.

## EAI 여론분석센터 출판물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이내영, 고려대)는 2012년 8월부터 주요 테마별 여론분석결과를 2-4페이지 분량으로 압축, 소개하는 <EAI 오피니언메모>시리즈를 발간한다. 주제별 심층분석 결과를 소개하는 <EAI 오피니언리뷰>(5-10페이지), 특정조사의 주요결과를 요약 정리하는 <EAI 여론브리핑>(10페이지 이상)와 함께 3종의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게 된다. 또한 주요 학술적 연구결과를 담은 EAI 여론분석 단행본 시리즈를 발간한다.

### 2012 EAI 오피니언메모(Opinion MEMO) 시리즈

- 제1호 “대기업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의 복합성” 정원철 (2012. 8. 24)
- 제2호 “정당 지지의 하락과 무당파 증가: 야당 지지이탈과 안철수 기대감” 강원택 (2012. 9. 4)
- 제3호 “박근혜 후보 지지층 확장의 과제 : 컨벤션 효과 크지 않았던 이유” 임성학 (2012. 9. 4)
- 제4호 “민주통합당의 딜레마: 안철수로 결집한 민주 지지자와 인물위주 선거” 박원호 (2012. 9. 4)
- 제5호 “2012년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국정운영능력은 박근혜, 도덕성과 소통능력에선 안철수” 김준석 (2012. 9. 4)

### 2012 EAI 여론브리핑 시리즈

- 109호 “2012 1월 주요 정치지표의 변화” 정한울 (2012. 2. 6)
- 110호 “2012 총선·대선 1차 패널조사의 주요 결과” 정원철 (2012. 4. 9)
- 111호 “여야 경합국면의 원인과 전망” 정한울 (2012. 4. 9)
- 112호 “유권자 패널의 4.11 총선평가” 정원철 (2012. 4. 23)
- 113호 “4.11 총선과 대선 정국” 이근수. (2012. 4. 23)
- 114호 “세계인의 분배 공정성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정원철 (2012. 4. 26)
- 115호 “세계인의 눈에 비친 17개 파워국가의 국제적 평판” 정원철 (2012. 5. 11)
- 116호 “2012 파워정치인 신뢰도·영향력 조사로 본 권력지도의 변화와 대선 정국 전망” 정한울 (2012. 5. 31)
- 117호 “여론으로 본 경선국면 전환기의 대선구도 평가” 정한울 (2012. 7. 1)
- 118호 “안철수 현상의 진화? 안철수 바람의 연속성과 차별성” 정한울 (2012. 7. 29)
- 119호 “박근혜 현상 vs. 안철수 현상의 충돌: 지지요인 및 후보 이미지 포지셔닝 맵” 정한울 (2012. 9. 2)

### 2012년 EAI 오피니언리뷰 시리즈

- 2012-01호. “2012 어젠다 : 어젠다를 보면 2012년이 보인다” 정한울 (2012. 1. 5)
- 2012-02호. “19대 총선 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장승진 (2012. 4. 25)
- 2012-03호. “부동층의 표심 이동과 이슈의 영향력 분석” 박원호 (2012. 4. 25)
- 2012-04호. “여론으로 본 4.11 총선평가와 대선 쟁점” 정한울 (2012. 4. 25)
- 2012-05호. “세대 투표율 분석을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 10년새 570만표 불어난 5060세대가 대선 좌우한다” 정한울 (2012. 7.25)
- 2012-06호. “한 줄의 카피전쟁, 대선 슬로건 1라운드 경쟁 결과: 수도권 3040세대 무당파층 FGD 결과를 중심으로” 정한울 (2012. 8. 3)
- 2012-07호. “출사표를 통해 본 대선유력주자 인지지도(cognitive map)” 정한울 (2012. 8. 12)
- 2012-08호.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를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지역투표 약화될 것인가? 교차 압력(cross-pressures)이 변수” 정한울 (2012. 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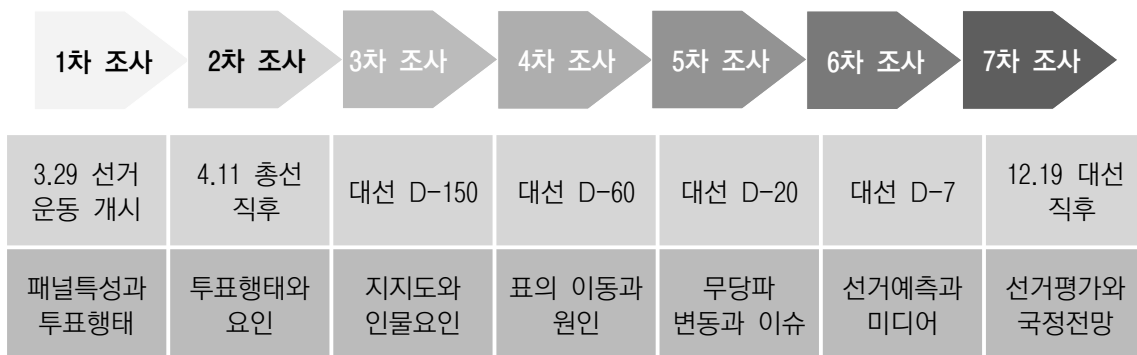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 · 대선 패널조사"

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 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AI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를 진행한다.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는 모두 7회(wave)를 진행한다.

### 〈패널조사의 진행과 주요 조사내용〉



### EAI 2012 패널조사 연구팀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권혁용(고려대) · 김성태(고려대) · 김민전(경희대) · 김준석(동국대) · 박원호(서울대) · 박찬욱(서울대) · 서현진(성신여대) · 윤광일(숙명여대) · 이곤수(EAI) · 이우진(고려대) · 이현우(서강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장승진(국민대) · 정원철(EAI) · 정한울(EAI) ·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 오승호 ·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 3차 패널조사 개요

조사일시	2012년 8월 20 - 23일 (4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 패널 1,450명
표본추출	지역 · 성 · 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학력/직업/자가소유 비율 반영)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2.6%
패널유지율	72.5% (1차 조사 2,000명 기준)